

고수의 미끼 투자자 속여 13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전남경찰청 수사 2계는 5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1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가르던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주식회사 대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직원 이모(4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광주시 동구 모 빌딩에 의료기 판매사업장을 개설한 뒤, 투자자 이모(44)씨에게 '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판매수당으로 12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등 그동안 378명의 투자자로부터 13억원 상당을 받아왔던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올 3월부터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생장수'(生藏水)라는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해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제품 10대를 샘플로 보여주며 대량 생산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외교관 아들 마약 밀반입

엑스터시 300여정 유통시켜

신종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복용·판매, 알선한 혐의 외교관 아들과 대학생·의사·대학강사·탈북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엑스터시를 캐나다에서 밀반입, 상습 복용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외교관 아들 김모(24·대학생)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엑스터시를 서울 시내 나이트클럽 등에서 판매한 혐의로 탈북자 고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엑스터시를 복용·판매, 알선한 서울 B병원 전문의 김모(32)씨와 D병원 수련의 김모(31)씨, 서울 S대 강사 김모(28)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교관 아들 김씨는 3~4월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300여 정을 담뱃갑에 숨긴 채 공항을 빠져나오는 수법으로 밀반입, 서울 인근 모텔 등에서 복용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알선된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흥생활을 했던 캐나다에서 총 30만원을 주고 구입한 엑스터시 300여 정을 국내에서는 한 알 당 5만~10만원씩 팔아 무려 1천5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특히 외교관 자녀에게 발급되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출입국시 심사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점을 악용, 담뱃갑 등에 마약을 숨겨 '무사히' 공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적발된 이들은 탈북자·의사 외에도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대학생·바텐더·공익요원·유흥업소 DJ 등으로 흥대 앞과 강남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엑스터시를 복용한 후 춤을 추며 '환각 파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PC방 도박' 단속 피하다 손님 추락사

건물 4층서 뛰어 내리다 참변 어제 광주 풍암동...1명은 중태

경찰의 성인 PC 게임방(이하 PC방)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손님이 10여m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5일 오후 3시34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건축리피코' PC방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장모(32·택시기사·광주시 서구 풍암동)씨가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조모(32·회사원·서구 금호동)씨는 PC방 외부의 비상 사다리를 통해 달아나 추락해 머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단속=광주지검 소속 수사관 8명을 태운 승합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PC방 건물에 도착했다. 경찰은 오전부터 수사관 2명을 손님으로 위장, 이 업소의 영업 상황을 파악한 뒤 기습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최근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배짱 영업을 벌여와 경찰에 단속대상으로 지목됐다.

◇사고 순간=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건물 밖에서 땅을 보던 직원이 무전기로 이런 상황을 알렸다. 업주와 종업원들은 "단속이다"고 소리쳤다. 갑작스런 소리에 한창 게임에 열중하던 10여명의 손님들은 건물 외부에 있는 철제 비상 사다리를 통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10m 높이의 4층 복도에서 뛰어내렸으며, 비상 사다리를 타

고 내려가던 조씨는 발을 헛딛는 바람에 추락했다. 숨진 장씨는 사고 20여분 뒤에야 수사관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왜 달아났나=현행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은 PC방(성인용 사행성) 업주의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객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PC방 측은 손님들의 도박을 무리하게 유도했고, 숨진 장씨 등도 다급하게 달아나다 번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단속을 시작하기도 전에 업주와 종업원이 손님들을 도주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PC방 무엇이 문제인가=사행성 게임방 PC는 모두 중앙업체가 제공하는 서버를 통해 타지역 PC방과 연결돼 있다. 이용객들은 사이버머니(cyber-money)를 걸며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한다. 판돈은 1만원 이상으로 한도가 없으며, PC방 업주는 게임 후 5~10%의 수수료를 떼고 사이버머니를 상품권으로 바꿔 준다. 업주들은 또 중앙 서버업체에 이익의 3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기고 있다. PC방 1곳의 하루 매출은 500만~1천만원으로 이용객 중엔 가산



'PC방 도박' 단속을 피하려다 손님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사고 현장. 왼쪽은 숨진 장씨가 뛰어내린 곳. 오른쪽은 PC방 외부에 설치된 각도 90도, 높이 10m의 비상계단.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을 탭진하고 빗더미에 앉은 직장인들이 많다. <본보 6월 28일자 9면>

◇검·경 단속 강화=광주지검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상업 중인 PC방 단속을 벌여 김모(39)씨 등 10여 명을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남 지방경찰청도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PC방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업

주 9명을 구속하고 손님 등 8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고 광역수사대까지 투입, 오는 10월28일까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사행성 PC게임방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광주에만 160여 곳이 영업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침 (6871) 김창두



연제2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세대 중 353세대 353세대 문의 (062)366-4220

해양 오염 외국 화물선 검거

목포해양경찰은 폐유를 바다에 몰래 버린 파나마선적 2만3천705t급 일반 화물선 '파이브 스타 글로벌호'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목포=이상규기자 lsh@kwangju.co.kr

40대 주부 은행 대기실서 지갑 '술쩍'

○40대 주부는 은행 창구 대기실 의자에 놓여있던 남의 지갑을 훔쳤다.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5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모(여·43·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B농협에서 수표와 현금 등 65만원이 들어있는 박모(여·45)씨의 지갑을 훔쳤다는 것.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두 아이들을 키웠는데, 10일 전 식당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3개월 동안 밀린 공과금을 내려고 은행에 갔다가 의자에 놓여있는 지갑을 보자 순간 돈 욕심이 들었다"며 선처를 호소. /이승배기자 lsb54@

'토종 민들레' 90%가 사라졌다

서양 민들레 유입 DNA 바뀌어 잡종화...생태계 파괴·건강위험



토종 민들레(사진) 90%가 국내에 들어온 외래식물인 서양민들레로 바뀌는 등 외래식물이 토종식물을 유전적으로 잡종화시켜 생태적 균형을 파괴하고 알레르기 등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외래식물 토착화에 따른 유전적·생태적 위해성을 전복대 생물과학부 등에 용역의뢰해 평가한 결과 유럽산 등 서양민들레가 지난 100년간 토종 민들레의 DNA 특성을 바꿔버려 토종 민들레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외래식물인 서양민들레와 예기수염은 뿌리째 뽑아 제거하는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피어나는 현상이 관찰됐다. 또 돼지풀은 늦은 여름과 가을에 걸쳐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주된 식물로, 최소 5m 이내의 돼지풀은 제거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페놀화합물(phenols)=식물이 성장을 위해 다른 식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비하는 화학물질의 일종. 모든 식물은 어느 정도 페놀화합물을 분비하지만, 외래식물은 일반식물보다 5~10배가량 많은 화학물질을 배출해 주변 식물의 성장을 저해한다.

국내로 들어온 외래식물은 300여종에 이르며, 서양등골나물·망초·돼지풀·미국속부쟁이 등 외래식물은 화학물질(타감물질·allelochemicals)을 자체 분비, 주변 토종식물의 성장을 저해하면서 서식지를 급격히 넓혀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외래식물이 분비하는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서양등골나물이 445mg/L로 가장 많고, 망초·돼지풀·미국속부쟁이·가중나무 등은 각 360mg/L 이상을 보였다. 서양민들레·예기수염·소리쟁이 등은 51~65mg/L 이상의 분비량을 기록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www.hilltopgolf.com

사계절 푸르른 양진디 합평다이내스티 C.C

혹서기 비회원 주중 그린피 할인

양진디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구분	대	중	소
기간	2006.07.06 ~ 2006.07.11	1.2만 원	0.8만 원
비회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비회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